

물류용어의 통일화와 표준화

I. 머리말

우리나라의 물류부문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물류기반을 만드는 표준화 문제는 시원스런 해답이 안나온다. 그래서 우선 물류현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물류관련 용어의 통일과 정의의 통일에 대해서 제언코저 한다. 물론 글로벌화를 위해서 부합화한 ISO규격과 KS규격 문제도 시급하지만 우선 이번에는 용어분야에 대해서 제언코저 한다.

물류용어(KS A 0013)규격은 1980년대에 제정되었고, 이를 전후해서 물류관련 용어 KS규격이 20여개 종류가 제정되었다. 그 후 수종의 용어가 추가되었을 뿐 제정당시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물류용어에 대해서는 필자가 수차 아래와 같이 언론지상 또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언한 바가 있다.

- 物流란 용어呼稱遺憾 (월간포장산업, 1993. 12)
- 물류표준화 연구 (기술표준원, 1999. 11)
- 물류용어의 표준화 연구 (한국표준협회, 2003. 2)
- 用語의 是非 (월간 기술표준, 2003. 11)
- 국내의 물류표준화 동향분석 및 향후정책 방향 연구 (한국표준협회, 2004. 2)

아날로드 시대에 만들어진 물류표준 용어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도 구태의연한 상태로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류현장에는 수많은 외래어와 기기메이커에서 만들어진 기기명이라든가 일



김정환
물류전략연구소장
011-359-0623
kimjh@yahoo.co.kr

본물류용어에서 도입된 어려운 용어와 또 외래어를 국어화해서 어려운 용어를 번역해서 이해하기 곤란한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물류에서 로지스틱스에 걸친 경영관리면 및 기술면의 모든 문제는 본래보다 무역관리, 최신의 정보·통신 관련, 과학적 경영관리의 모든 방법까지 폭넓게 용어의 선택을 하였다.

현재 물류의 용어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2항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재검토가 요망되고 KS규격의 물류용어 정의도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로지스틱스(logistics)란 용어도 일상용어로 사용되면서 그

정의는 법에서나 규격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고, 물류현장에서 사용되는 물류관련 신규용어를 흔히 사용하면서도 아직 표준화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유넷로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물류관련장치·기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까지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 두었지만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류에 관련한 용어가 사용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널리 물류관련 용어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정보기술은 날이 발전하여 고도정보화 사회라든가 정보네트워크 사회라고 불리고 있다.

물류를 유지하는 교통 인프라에 더해서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확대되고 물류전문 의 새로운 용어가 수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표준화가 안 된 그대로 사용되어 혼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II. KS 물류용어의 현상과 문제점

1. KS 물류용어의 현상

물류는 그 동안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물류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급진전, 로지스틱스로의 전환 등으로 세계 속의 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추진되고 도입되면서 물류현장에는 유행어처럼 나타난 것이 새로운 물류용어이다. 이미 KS 용어에 표준화한 것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너무 복잡하고 한 개의 기계에 호칭이 3~4개까지 되고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물류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류용어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안된 용어, II 관련 약어 등이다. 또 KS 용어와 현장용어의 상이한 것 등이다.

아래 표는 물류관련 용어(KS)의 현황과 새로 추가하여야 할 용어 그리고 혼란스러운 용어를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다.

1) 물류관련용어의 현황

(1) 물류부문

규격번호	규격명
KS A 0013	물류용어
KS A 1103	국제대형 컨테이너 용어(개정 중)
KS A 1104	파렛트 용어(개정)
KS A 1621	무인관송차량 용어
KS A 1631	데이터 캐리어 용어
KS A 1780	랙 용어
KS B 0127	크레인 용어(제1 크레인 용어)
KS B 0128	크레인 용어(제2 크레인의 성능 및 구조)
KS B 0131	컨베이어 용어(종류)
KS B 0135	컨베이어 용어(부품 및 부속기기)
KS R 0200	트럭의 보통 적재함에 관한 용어
KS R 3002	지게차 용어
KS R 1622	권상기 용어
KS R 6706	입체자동창고 용어

(2) 포장부문

규격번호	규격명
KS A 1006	포장용어(개정 중)
KS A 1007	골판지 용어(개정 중)
KS A 1101	크라프트지대 용어
KS A 1102	포장용 나무성자 용어
KS A 1105	광청광식 용어
KS A 1105	접착테이프·접착시트 용어
KS M 7017	종이펄프 용어

2. 새로 추가선택이 요망되는 용어

1) 새로운 물류용어

- 로지스틱스 logistics
- 비즈니스 로지스틱스 business logistics
- 파렛타이즈드 화물 palletized load
- 서드파티 로지스틱스 third party logistics(3PL)
- 아웃소싱 outsourcing
-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upply chain management
- 크로스 도킹 cross docking system
- 플렉시블 컨테이너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택배편 parcel delivery service
- 카페리 calferry
- 포스시스템 POS: point of sales
- 소팅시스템 sorting system
- 저스트인타임 JIT: just in time
- 피키백 시스템 piggy back system
- 랜드브릿지 land bridge
- 퀵서비스 quick service
- 드롭십먼트 drop shipment
- 트라버서 traverser 등

2)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안된 용어

- 포장모듈 packing module
- 운송 transportation shipment
- 운수 transportation traffic
- 이송 transfer
- 국제물류 international logistics
- 혼재화물 consolidated cargo
- 항간 harbors
- 표준화 standardization

- 과적차 over loading on truck
- 공동배송 joint distribution
- 하물 load
- 관송 transfer
- 화물터미널 cargo terminal
- 데이터 캐리어 data carrier(RFID)
- 복합일관수송 multimodal transport

3) 선택되어야 할 약어

약어	용어의 투재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3PL	3rd Party Logistics
SCM	Supply Chain Management
TM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CSM	Component Supplier Management
E자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VAN	Value Added Network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VO	Commercial Vehicle Operator
MRP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POS	Point of Sales
CALS	Commercial Light Speed
GPS	Global Position System

3. 혼돈하기 쉬운 용어

1) 유사한 용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달리 사용하는 용어가 많고 또 일본어에서 수입된 용어가 그런 것들이 많다. 정의가 필요하다.

- 수송(輸送) 운송(運送) 운수(運輸)
- 하물(荷物) 화물(貨物)
- 하주(荷主) 화주(貨主)
- 운반(運搬) 반송(搬送) 이송(移送)

- 배송(配送) 배달(配達)
- 택배(宅配) 특송(特送)
- 스택크레인(Stacker crane), 랙마스터(Rack master), 랙로저(Rack loader), 트랜스퍼 카(Transfer car)
- 트라서버(Traverser), 하이쉬프터(Hi shifter)
- 물류단지(物流團地), 집배송단지(集配送團地), 물류기지(物流基地), 유통단지(流通團地), 물류거점(物流據點)
- 유통(流通)센터, 배송센터, 데포(depot), 스톡센터(Stock center)
- 집하(集荷), 집화(集貨) 등

어려운 우리나라 용어	영어용어가 쉽고 현장에서 사용
부문적인 4방향 치입식 파렛트	Partial 4way pallet
반침목 도려낸형 파렛트	Notch pallet
겹침형 파렛트	Overlap pallet
길면 청문형 파렛트	Perimeter-base pallet
상부 배출식 상자형 파렛트	Top box pallet
제한 모데기부	Slot chamber
골판지용 라이너	liner board
누름재	bracing
회수사용용기	returnable container
제3자 물류	3PL 또는 TPL

2) 일본 물류용어

일본어도 현장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사용하는 형태가 영어와는 달리 그대로 쓰는 용어와 한자만 일본어이고 사용용어는 우리나라 발음 등이다.

- 하조(荷造: にづくり) 짐꾸리는 행위
- 하자(荷姿: にすかた) 짐꾸린 모양
- 상옥(上屋: うしや) 임시창고 건물(우리나라에 헛간 따위)
- 반송(搬送: ほんそう) 중력이나 기계적으로 운반되는 것
- 곤포(梱包: こんぽう) 짐꾸리는 포장(즉 목재, 금속재 등을 사용해 하는 포장)
- 이고(移庫: いこ) 창고 간 옮기는 것

3) 어렵고 이해가 곤란한 용어

발음도 어렵고 뜻도 잘 이해되지 않는 용어이다. 모데기부, 꺾쇠, 노치수평접질, 가시못 직접 쌓기, 중첩쌓기, 권상기, 반송차, 화물갖출 등 외래어를 까다롭게 번역하게 이런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KS에는 무수한 이런 용어가 많다. 아래와 같은 용어들이 영어로 호칭되고 있다.

4. 물류용어의 경시화의 문제점

최근 물류용어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받는다. 「3PL이 무슨 말의 약어인지」 또는 「3PL이 아니라 TPL이 맞지 않은지」, 「서드파티·로지스틱스란 무엇인지」, 「아웃소싱은 외주화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에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물류흐름 중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라는 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용어는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장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를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보이는 장래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꼴이다. 그런 뜻에서 새로운 언어는 중요시하고, 또 그 이해에 있어서는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언어가 등장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라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왜 지금」이라는 배경이 이해된다면 그 용어가 가진 뜻과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로지스틱스라는 용어를 들 수 있다. 그 이해로서 「로지스틱스로 물류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간단히 끝내 버린다면 로지스틱스가 가르키는 새로운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로지스틱스는 시장이 읽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 시

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만든다든지, 사입한다든지 하는 낭비, 체류, 재고화하는 낭비, 품질에 의한 판매기회손실 등 낭비의 크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장으로서는 크기 때문에 장래 이들의 기업간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용어경시가 기업간 격차에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우려해야 할 사항이다.

III. 향후의 대책과 과제

1. 용어의 통일과 정의의 통일

1) 용어의 통일

업무수행의 순서를 쓰다보면 여러 가지 모순을 알게 된다. 업무의 필요성을 알 수 있고, 유사한 업무나 자료를 통일해서 간단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상의 용어, 기기장치명, 작업용어 등이 각 사람에 따라 또 사업소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 업무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류현장에서 중요한 것부터 용어집을 만들어 등록하고 표준화하여야 하며 물류기기 명칭의 경우 현장에서 자동창고의 스택크레인(stacker crane)이 랙마스터(rack master), 포 로더(rack loader), 트랜스퍼 카(transfer car) 등으로 호칭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한다.

2) 용어정의의 통일

물류용어의 정의도 중요하다. 수주(受注 - 주문을 얻는 활동이 성공하여 수요자로부터 물류시스템에 대한 하청계약을 얻는 것), 구두로 수요자의 담당자로부터 제작에 착수해 달라고 말한 것만해서 수주인지,

내시서(內示書)의 수령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또는 전도금, 납기, 납기지연의 경우 벌칙조항, 지불조건 등 규정에 합치된 주문서를 수령해서 처음으로 수주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 애매한 일이 많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는 정식 주문서는 구두에 의한 내시의 수 개월 후에 발행되므로 주문서의 정식수령을 가지고 수주한다면 납기의 직전에 비로소 생산을 수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거래를 희망한다면 구두내시의 시점에서 제작수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층별로 실용화에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현실화 필요

아날로그시대에 제정된 KS 물류용어가 디지털 경제구조에 걸맞는 용어와 정의의 현실화하여 세계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하다. 산자부도 국가표준체계(KS)를 재정비할 예정이며 19개 행정기관이 49개 법령에 의해 관장하고 있는 기술규격18,600종을 KS규격 내에 수용·통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기술규격이나 형식이 제각각이었던 디지털 전자상거래, 지리정보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분야의 규격을 새로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이며 현실화할 것이다.

1) 현실화의 필요성

제품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표준화에 뒤지면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되고 마는 절박한 시대적 환경변화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규격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선진국들이 표준규격 선점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신기술의 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이 국가규격 전면개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

다. 대형 구매자인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화 규격에 미달하면 아예 제품수입을 불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망을 구축중이다. 표준화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2) 개선방향

정부부처 내 협조가 절실하다. 표준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만도 19개 행정기관, 법령은 49개에 달한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나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국제표준화 외교도 급선무, 국제무대에서 기술표준 상호인정은 서로 믿고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회원제 클럽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국내 100여개 공인시험기관에서 세계 규격에 의한 시험이 가능토록 설비와 기술 능력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용어정의의 개정에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정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하겠다. 확실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혼용·혼돈되고 있어 학계나 정책 입안 당국에서 정립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물류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파악과 KS상에 규정된 용어가 얼마나 인지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물류관련 정보용어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KS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물류관련 용어가 20여 개 종류중 10여 개 종류는 현실적으로 개정되었거나 개정 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10개 종류를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물류용어 사전편찬을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해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용어의 근원이 어디서 나

왔는지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ISO와 KS의 관련용어 정합화를 ISO 규격이 아닌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관련용어로 정합화시킨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당국의 확실한 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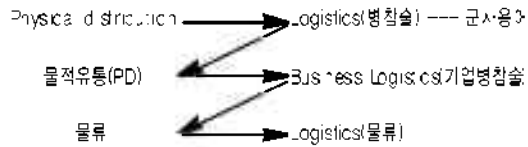
IV 기대효과

현재 물류현장에서 혼용되고 있는 물류용어가 통일 표준화되므로 해서 수발주를 비롯해서 모든 의사전 달 및 정보교환이 합리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 물류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전문용어가 표준화됨으로써
 - 물류거래의 데이터교환, 자동화 등에 의한 업무처리 효율화
 - SCM의 최적화
 - 정보시스템화에 의해서 IT 물류 등 고도서비스의 실현
 - 기업간·국제간 정보연계의 용이화에 의한 사업의 확대
 - 중보정보시스템의 투자전략
- 수출입의 활발과 국제화 조기달성
 - 수출입의 활발과 국제화에 근접
 - 통일전표사용의 기반마련
 - 물류표준화의 지름길 역할
 - ISO의 정합화 용이
- 데이터처리의 경제적 효과
 - 데이터 처리시간의 단축
 - 데이터 입수의 용이화, 데이터 입력코스트 삭감
 - 서류, 사무작업의 감소, 생략화
 - 고객서비스의 개선

데이터의 정확성이 향상, 데이터 교환내용의 명백화
정보기기투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절약
이기종간 데이터 교환가능
데이터 교환의 운용통일화나 트러블 해소의 단축화
데이터 교환의 비용부담의 명확화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이론 정립



◀ 기업병참술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달유통과 물적유통을 하나의 조직으로 경제적·기술적인 제어활동을 말한다.

V 맺는 말

아날로그시대 물류용어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물류 표준용어로 바꾸고 현재 새로 사용되는 많은 용어를 추가하고 여러 가지로 호칭되고 있는 기기명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용어의 폐기가 불가피하다.

현재 물류현장에서는 물류관련 장치 및 기기의 호칭 혼란으로 인한 문제점과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각종 장치 및 기기간의 완전한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표준화에 대한 보급, 교육, 그리고 홍보활동이 시급하지만 우선 용어의 통일방안과 분류방법에 대해서 표준화의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류관련 장치 및 기기를 물류라는 용어의 통일적 관점에서 용어의 통일, 용어 정의의 통일을 분류·정리하여 체계적인 표준화가 시급하다.

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라는 용어와 「로지스틱스」라는 용어를 놓고 혼돈이 많다. 「물류는 바로 로지스틱스다. 「물류는 PD(Physical distribution)이다. 또 일부에서는 「비즈니스 로지스틱스」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물류는 로지스틱스라고 하지는 것 등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물류는 곧 로지스틱스이고 로지스틱스는 곧 물류라는 것으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물류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염려스런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분야에 외래어가 몰밀 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특히 일반분야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정보분야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용어를 접하게 된다. 이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밀려들어오는 외래어를 막을 수 없고 변형시키는 번역도 부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 물류현장에는 헤아릴 수 없는 용어가 물류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표준화한 용어는 용어대로, 현장에는 현장대로 사용하는 용어대로 제각기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물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온 것은 80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용어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로지스틱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물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각종 시험장에서는 확실한 정의도 안 된 용어를 시험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립이 불가피하다.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류관련 용어는 3년을 주기로 확인하고 추가하였으면 한다. 그래야만이 물류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다.